

# 분당 문턱서 극한 대치...국민의당 사실상 '한지붕 두살림'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분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찬성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개혁신당' 창당준비기구를 꾸리는 등 당 안에 두 개의 신당준비기구가 운영되는 상황이다.

◇통합찬성파=7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측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공식 출범시켜 전대 시기와 시행세칙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인적 구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9~10일 중 당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당무위를 언제 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무위 소집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도 있고, 당대표 직권으로 당무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파는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께를 전대 목표일로 잡고 있으며, 이때를 전후로 바른정당과 함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양당 사이에는 통합 초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양당 교섭체내인 '통합추진협의체'(통합추협) 소속 이인주 의원은 "창준위는 전대 후에 구성한다는 생각이지만, 전대 전에도 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일정은 전대가 가시화했을 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준위 구성을 둘러싼 반대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

## 통합파

### 주내 전준위 출범 통합 속도

### 선관위 '케이보팅' 제동 압초

## 반대파

### 신당 준비기구 구성 착수

### 창당기획단장에 김경진 의원

측이 나오고, 여기에 더해 통합신당의 정책·정책에 대한 바른정당과의 견해차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마저 있어 막바지 통합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대에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안 대표 진영은 전대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안 대표 측은 권역별 전당대회 개최 등 '플랜B'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파의 각종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반대파의 핵심 중 한 명으로, 전대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전대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을 통한 의사행방해)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당 안건 통과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반대파=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객관적인 전준위 구성을 위해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 대표 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반대파는 현재 전대를 무산시킨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세 규합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케이보팅 도입이 좌절된 것을 계기로 통합 전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광주를 찾아 '보수대야



7일 오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마라톤대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합' 저지를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다른 한편으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이 추진하는 '개혁신당' 창당 준비기구 구성을 착수했다. 이들은 앞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저지하는 투쟁과 통합반대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 정당인 '개혁신당' 창당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창당기획단 단장은 김경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창당기획단 내에 전략위원회, 조직위원회, 흥

보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략위원회는 홍승태 전 기획조정위원장, 조직위원회는 김정기 부천·소사 조직위원장, 홍보위원회에는 이연기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공보실장은 김정현 전 국민의당 공보실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대한 후속인선도 논의됐다. 조배숙 의원이 모임 대표, 최 의원과 장정숙 의원이 대변인을 계속 맡기로 한 가운데 사무총장으로는 정인화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당보조금, 국민의당 분당 앞당기나

### 1분기 지급 내달 15일 이전

### 반통합파 창당 추진 관측

### 20명 교섭단체 구성 관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지급 시기가 국민의당 분당 시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안철수 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호남의원 등 통합반대파는 합당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의 교섭단체 구성상황과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1분기 지급일은 내달 15일이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시기를 감안하면, 통합 반대파가 검토 중인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 시점이 이르면 2월 15일 이전에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통합반대파의 개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개혁신당

의원내 영향력뿐 아니라 보조금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석 20석 확보는 사실상 신당의 장기 생존의 가능자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보조금 산출액을 기준으로 통합반대파의 개혁신당이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합류하고, 나머지가 바른정당과 통합신당을 구성했을 경우 개혁신당은 대략 20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혁신당이 20명에서 1명 모자란 19명이 합류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은 절반이 툭 깎인 약 11억 2000만원에 그친다.

통합 반대파인 장병완 의원은 '선관위의 정당보조금 지급시기가 통합반대파의 창당 시점과 관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신당 창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가 통과됐을 것을 대비한 시나리오로서 현시점에서 창당시기와 정당보조금 지급시기를 연결짓는 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관위의 K보팅 제동 결정에 따라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합당을 추진하는 쪽이 당을 나가 바른정당과 합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물 건너간 중재안... '캐스팅 보트' 중립파 의원들 행보 주목

### 광주·전남지역만 5명

### "분당은 공멸... 끝까지 중재"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 통합파가 사실상 분당을 각오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중립파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광주·전남지역의 중립파로는 박주선 국회의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황주홍, 손금주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분당 등 파국만은 막아

야 한다는 논리로 어느 한 편을 손들여 주기 보다는 중재안을 내면서 극적인 합의의 도모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통합에 나서자는 중재안은 당내 통합파는 물론 반통합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양 측의 감정 대결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 중립파 의원들도 이달 말에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립파 의원들이 5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는 통합

파의 세력 확대와 반통합파의 교섭단체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파 대부분이 막판에 반 통합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통합파 일각에서는 하반기 국회의원장과 통합신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뚜렷한 명분 없이 중립파 의원들이 지역 민

심을 외면하고 통합 신당에 합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중립파 의원들은 '분당은 결국 공멸'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인바 이들의 선택은 2월 전당대회 직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지역 중립파 의원은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며 "분당은 모두 죽는 길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